

# 북한을 위한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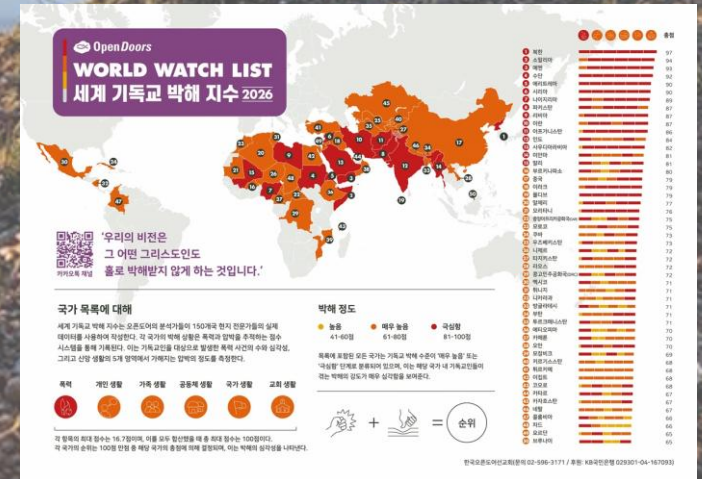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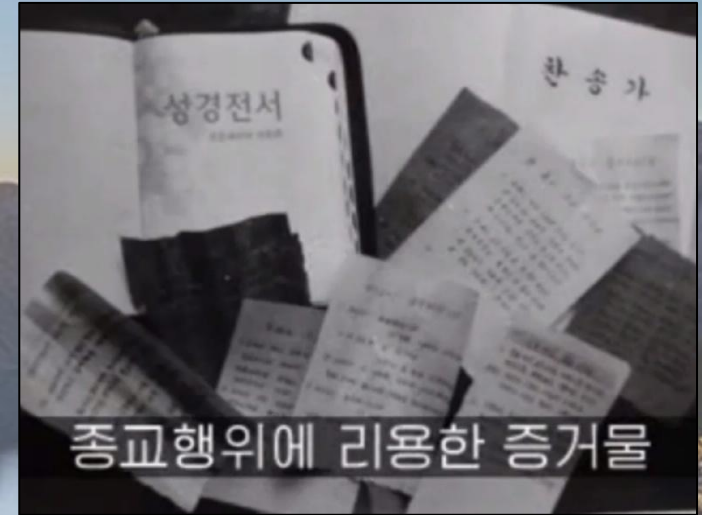
2026년 2월



# 1.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2026년 1월 발표된 오픈도어선교회 세계기독교박해지수(World Watch List 2026)에서 북한이 다시 한번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으로 꼽혔습니다. 더 극심해진 주민 통제로 인한 억압이 증대되고 기독교에 대한 직접적인 박해가 적극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종교 물품과 미디어에 대한 단속은 물론이고 비밀리에 신앙을 가진 개인과 지하교회를 적발, 추적하는 공안 조직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속히 중단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도합니다.



## 2.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과 갇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 한총련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시던 장백의 장문석 집사님께서 12년 만에 풀려나셔서 중국으로 귀환하신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소식에 따르면 집사님께서 옥중에서 몸무게가 크게 감소하고 치아가 유실되는 등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셨지만, 오히려 가족들의 신앙을 걱정하며 믿음으로 수감 생활을 견뎌내셨다고 합니다.

집사님의 귀환을 기뻐하며 옥중의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전히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님 등이 억류 중이고,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진 지하교회 성도와 강제 북송 탈북 여성 신자가 있습니다. 갇힌 성도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한 연좌제로 인해 함께 처벌 및 추방을 당한 지하 성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2년만에 귀환한 장문석 집사

### 3. 북한의 긍정적인 방향 전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해 북한은 예정된 제9차 당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행사에서 북한이 천명할 방향성이 한반도 평화 증진이나 주민 인권 개선보다는 대외적으로는 '신냉전 구도'와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의 강화가, 대내적으로는 '김정은 우상화'와 '극심한 사상 통제' 등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당국의 노선 속에서 북한 주민들과 성도들이 겪을 고통이 심화될 것에 대한 우려가 큼니다.

올 한 해 북한의 방향성이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에 진전이 있고 주민들을 향한 억압이 완화되도록, 특별히 예배의 자유를 비롯한 주민들의 권리가 신장되도록 기도합니다.



## 4.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발표한 주요 안보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은 남한을 적대국으로 지목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고 있지만, 북핵 문제의 해결은 갈수록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더 절실해지는 이유입니다.

핵보유국을 꿈꾸는 북한의 전략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한반도가 북한이 말하는 대결의 장이 아닌 평화의 공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각국의 주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한반도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성탄절 공개한  
8700톤급 전략핵잠수함



미중, 안보 정책 문서에  
나란히 한반도 비핵화 삭제

## 5. 해외 북한 노동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으로 다수의 북한 노동자가 파견되고 있고, 올해에도 그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들 노동자는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착취당하는 등 인권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와 동시에 이들은 비록 통제 아래 있지만 북한 밖 세상을 경험하고 북한에서 듣지 못했던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해외 북한 노동자들이 바깥세상에 대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더 나아가 복음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들을 향한 창의적인 선교의 기회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착취가 중단되고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개선되도록 기도합니다.



## 6.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문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 속에서 군수공업을 중심으로 3% 이상의 경제 성장을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가 민생 경제 증진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경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통제하려는 당국의 정책으로 시장이 위축되고 서민들의 경제활동 공간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여전한 각종 노력 동원과 세외부담도 큰 부담입니다.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극심한 추위 속에서 고통받는 소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덧붙여 북한 주민들에게 육적인 필요와 함께 영적인 생명이 함께 공급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사역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 7. 해외 북한 선교 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로운 왕래가 불가능한 북한의 특성상, 북한 선교에는 북한과 인접한 국가들의 중요성이 큼니다. 북한과 주변국 간 협력이 강화될 때 주변국에 북한 당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선교 현장의 긴장감을 높아질 수도 있지만, 교류 확대로 선교를 위한 접촉면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6년 북·중·러 관계는 긴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러·우 전쟁의 종식 여부나 북·중 관계에서 여전히 보이는 불협화음 등 여러 변수가 있어 지혜로운 대응이 요구됩니다.

북·중·러의 긴밀한 관계가 더 많은 북한 출신 영혼들과의 접촉점 확대로 이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일선의 선교사님들과 현장 사역자들이 복잡한 정세 속에서 변화하는 상황에 적시적으로 잘 대처하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 8. 제3국 북한 선교 환경의 개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5월 1일부터 외국인의 종교 활동을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시행하였고, 지난 9월 15일에는 온라인에서 성직자가 허가 없이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미성년자 대상 종교 전파 활동을 더욱 엄격히 금지하는 등 온라인 종교 활동을 규제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이루어진 미등록 가정교회에 대한 대규모 처벌 사건도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종교 활동에 대한 처벌로 알려져 온라인 선교 사역에 비상 경고가 울린 상황입니다. 러시아에서는 2024년 초 탈북자 사역을 하던 백 모 선교사님이 체포되어 현재까지 구금 중입니다.

어려운 해외 북한 선교 환경의 개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선교사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생존하며 창의적인 방법을 개발해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주기도문

새번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